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원더걸스’ 선예·소희 탈퇴 “팬들의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거예요”

예은, 유빈, 선미, 헤림 등 4인 체제 밴드 활동... 내달 컴백 앞둔

JYP엔터테인먼트가 원더걸스의 멤버 선예와 소희가 팀을 탈퇴한다고 20일 밝혔다. JYP는 “선예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탈퇴와 함께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미 다른 기획사로 이적한) 소희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리더로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시 한 번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원더걸스 멤버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 값진 경험들을 했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 여정을 보냈다. 앞으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including 'EBSe 생활영어', '성공 인생후반전', 'EBS 인문학 특강(재)', etc.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including '내 친구 아서', '세계마을 티키토!', '미술 탐험대',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고교 Basic Grammar-junior',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 (음 6월 6일 戊戌)

- 48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60년생 가능성이 약하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72년생 어차피 작정한 바리엔 배를수름 능률적이다. 84년생 가만히 살펴보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5, 58

- 42년생 곧 한계 양상에 부각하리라. 54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적이다. 66년생 발전적인 눈의를 한 끝에 결실을 이룬다는 판도이다. 78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19

‘쇼미더머니 4’ 저질 퍼포먼스로 녹화 중단

제작진 사과 “신중하게 편집 할 것”

‘난란 제조기’인 엠넷 합작 서버이벌 ‘쇼미더머니 4’의 프로듀서들이 최근 한 참가자의 선정적인 퍼포먼스에 항의하며 녹화를 중단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타블로-지누현, 산이-버벌진트, 박재범-로꼬, 지코-팔로알토 등 심사를 맡은 프로듀서들은 지난 11일 녹화에서 래퍼 블랙넛의 선정적인 랩 퍼포먼스에 “이건 아니다”고 문제제기를 해 수시간 동안 녹화가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준을 넘어선 가사가 서슴지 않고 등장한다. 또 ‘하이어 덴 이센스’(higher than Esens)란 곡에서 대선배인 타이거JK의 부인인자 선배 래퍼인 윤미래를 성적적으로 ‘디스’해 관심을 받으려 했다. ‘내 미래는 XX 클 거야 엄정/ JK 마누라 건 딱히/ 내 미래에 비하면 아스팔트 위야 껌딱지/ 니 노래를 듣고 있음/ 복장이 타겟 같아~’란 가사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박스오피스 1위

200만 관객 돌파 “성인도 불만해”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사진)이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은 지난 17~19일 전국 931개 스크린에서 관객 93만 9236명(매출액 점유율 35.3%)을 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올랐다. 누적관객 수는 전날 200만명을 돌파하며 206만6015명에 이르렀다. 이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는 개봉 첫날 4위로 시작했으나 점점 지고 올라가 화요일인 지난 14일부터 6일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보통 실사영화보다 관객 동원력이 약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은 어린이를 넘어 성인 관객이 보기에 손색없는 영화라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